

금리가 상단을 제약 Vs. 주주환원이 하단을 지지

KOSPI 6,913pt(+0.9%), KOSDAQ 802pt (-4.6%)

① 해외 상황 재무부 바이백 효과 일일천하로 끝나나는 우려

- 간밤 미국 주식시장은 재무부 바이백 효과 하루만에 되돌려지며 장기금리 재차 반등. 월마트 실적 부진 여파까지 겹치며 하락 (나스닥 -1%, S&P500 -0.9%,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5%). 재정적자, 국채 공급이라는 구조적인 금리 부담에 중동 불안과 유가 상승 지속되며 할인을 부담 부각. 바이백이 단기적 안정책일 뿐 추세적인 금리 하락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 다만 마이크로 +4% 포함 SK하이닉스 ADR 등 스토리지는 차별화. 시장은 금리보다 실적과 현금창출력이 확인되어 주주환원 기대하게 하는 종목 중심의 선별 및 압축 대응 진행 중

② 수급 외국인 순매도에도 자사주 매입 및 주주환원 기대감 속 대형주만 상승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1.2조, 외국인 -0.17조, 기관+0.25조원 순매수. 기타법인 오늘도 1조원 이상 순매수 하며 자사주 매입 효과로 반도체 대형주 및 S7 상승. KOSPI 상승 견인

③ 특징업종 주주환원, S7, Perfect

- 1) S7 : SK하이닉스 2.3%, 삼성전자우 8.3%, 삼성전자 3.9%, 삼성물산 5.8% 삼성생명 10.6% 상승하며 대형주가 지수 상승 주도. 기타법인 순매수대금 2거래일 연속 1조원 상회

④ 일정 다음주 엔비디아 실적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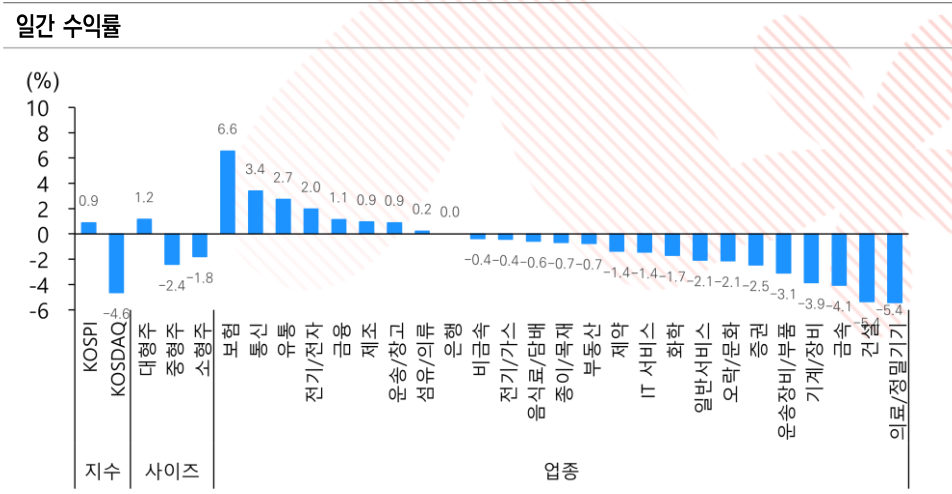
- 1) 엔비디아 실적 (한국시간 8/27 06:00), 2) 현대차CEO인베스터데이 (한국시간 8/26)

⑤ 상황 금리가 상단을 제약하고 주주환원이 하단을 지지

- 금일 KOSPI, KOSDAQ 각각 +0.9%, -4.6% 등락. 상방압력 주주환원과 하방압력 금리간 줄다리기가 지속. SK하이닉스의 40조원 자사주 매입-소각에 이어 오늘 삼성전자가 이사회 이후 100조원 안팎의 신규 주주환원책 논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 반도체 대형주, S7이 KOSPI 지지. 그럼에도 상승 종목 193개 Vs. 하락 종목 683개로 쏠림 현상 심화. 미국 장기금리가 재차 반등하고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 시점에서, 주주환원 + 이익체력 + 수급 까지 모두 만족하는 KOSPI의 아웃퍼폼은 지속될 전망
- 전략) 당분간 시장은 금리가 상단을 제약하고 주주환원이 하단을 지지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 장기금리와 유가의 상승은 이미 익숙한 악재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 외국인 수급과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실제 매수 수요와 자본효율성 개선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재료. 심지어 단타성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닌 FCF 확대에 따라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장기 모멘텀임을 시사. 따라서 지수 전체의 강한 확산이 아닌 실적+주주환원+정책 모멘텀 모두 명확하고 실제 수급이 따라오는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에 맞춘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 가장 실적이 확실한 녀석들이 가장 주주환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 순환매는 매크로(금리) 변동성 완화 이후에나 기대해볼 요인. KOSPI 대형주에 딱 붙어있어야 할 이유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2,481	-3,464
외국인	-1,761	-2,836
개인	-11,651	6,235
거래대금	286,920	54,118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